

2011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답

1	⑤	2	④	3	②	4	③	5	④
6	①	7	⑤	8	③	9	④	10	③
11	①	12	③	13	②	14	④	15	⑤
16	④	17	②	18	③	19	⑤	20	④
21	②	22	④	23	③	24	①	25	①
26	④	27	②	28	④	29	②	30	②
31	⑤	32	⑤	33	①	34	③	35	⑤
36	②	37	②	38	③	39	⑤	40	②
41	①	42	③	43	④	44	⑤	45	③
46	②	47	①	48	④	49	①	50	②

해설

[1~5] 듣기

[1] 이제 문화평론가의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는 애스컬레이터 옆에 피아노 계단을 설치해서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센서를 부착한 곳이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에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애스컬레이터를 두고 평소와 달리 계단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시카고에 있는 레이크쇼어 도로는 미시간 호수의 빼어난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이지만, 곡선 구간이 많아 사고가 빈발한 곳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시 당국은 커브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가로로 흰 선을 그어 커브에 가까이 갈수록 선의 간격을 점점 좁게 만들었습니다. 속도가 높아진다는 착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려서 사고 건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넛지’라고 합니다. 넛지의 사전적 의미는 옆구리 같은 곳을 ‘팔꿈치로 살짝 써드나’입니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 교수가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설계의 힘을 ‘넛지’라 부르며 새롭게 정의한 것입니다.

[2] 다음은 강의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수학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수학자인 네이피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피어는 지금 쓰는 로그를 만들었고, 또 ‘계산자’를 만들어서 큰 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이피어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천문학에서는 큰 수를 자주 계산해야 했기에 쉽고 편리한 계산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네이피어 계산자’입니다.

‘네이피어 계산자’는 1단부터 9단까지 구구단이 쓴 막대 9개와 어느 행인지 알려주는 막대 하나를 더해, 모두 10개의 막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곱셈을 한 번 해볼까요? <그림 1>을 봅시다. 237곱하기 6을 계산하려면 먼저 2단, 3단, 7단의 막대를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행의 수를 같은 대각선 방향 안에 있는 숫자끼리 더하여 차례대로 읽으면 됩니다. 첫째 자리는 1, 둘째 자리는 2단의 2와 3단의 1을 더해 3, 셋째 자리는 3단의 8에 7단의 4를 더하면 12, 마지막으로 2입니다. 즉 1, 3, 12, 2인데 수가 10을 넘으면 앞자리로 옮려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422입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6497 곱하기 7을 계산해 봅시다. <그림 2>처럼 6, 4, 9, 7단의 막대를 놓으면 되죠. 6497 곱하기 7입니다. 그럼 판호

안에 들어갈 수는 어떻게 되지요?

[3] 이제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여) : 심한 즐음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즐리는 것도 심하면 병이라고 하는데요, ‘건강길잡이’, 오늘은 기면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희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남)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교수님~, 보통 즐란다고 할 때, 즐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를 심한 즐음이라고 합니까?

교수 : 심한 즐음이라고 하면, 수업 시간같이 꼭 깨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즐음을 참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과다수면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과다수면증은 기면증과 같은 건가요?

교수 : 우리가흔히 알고 있는 기면증은 과다수면증의 한 중상입니다. 우리 뇌에는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는데요, 이 중추의 통제 하에 수면의 폐단이나 양쪽 절이 결정됩니다. 이 수면조절 중추에 문제가 생겨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대에 심한 즐음을 느끼는 뇌신경계통의 질환을 과다수면증이라고 합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기면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수 : 기면증은 뇌 속의 각성물질인 하이포크레틴 부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개 한창 공부할 시기인 10대 중반에 심한 즐음증이 나타나면서 시작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 생활에 불편이 많고, 감정 변화와 함께 근육의 긴장이 풀려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앵커 : 아~ 예~, 그래서 기면증이 학습 장애를 초래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도 병이라 생각하지 않고 계으른 사람으로 여기다가 치료가 자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특히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이 점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4~5]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남) : 최근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 입장이 팽팽한데요, 환경부의 이종무과장님, 그리고 시민단체의 김해정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과장(남), 김 대표(여)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케이블카 설치 길이는 현행 2km에서 5km로, 정류장 높이는 9m에서 15m로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조건을 완화하게 된 이유를 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과장 :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자연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고요, 또 하나는 노약자나 장애인에게도 다양한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에게도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입니다.

사회자 : 케이블카 설치 기술이 발전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신지요.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대표 :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환경 훼손을 어느 정도 줄일 순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안에 케이블카를 더 많이, 더 높이, 더 길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장 : 예, 물론 자연보존지구 내의 케이블카 설치

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 예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케이블카를 설치해 자연 환경도 잘 보존하면서 관광객도 더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런 점 때문에 최근 많은 저자체가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 대표 :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저자체들은 모두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가 생기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물리면서 자연은 더 훼손될 것입니다.

이 과장 :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국립공원에 재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이 요건을 채우는 곳 가운데 내륙과 해양 한 쪽에 우선 설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사회자 : 국립공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해서 수익금을 전액 국립공원 관리에 쓰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러면 잠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 [출제의도] 강연의 중심 화제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넛지’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강요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다. 즉, 선택설계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지를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이득을 훼손하지 않고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⑤

2. [출제의도] 강의의 중심 화제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6497 곱하기 7이므로 첫 자리는 4, 둘째 자리는 6단의 2와 4단의 2를 더해 4, 셋째 자리는 4단의 8과 9단의 6을 더해 14, 넷째 자리는 9단의 3에 7단의 4를 더해 7, 마지막은 9이다. 정답은 ④

3. [출제의도] 방송을 통해 기면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 기면증의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언급은 방송에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은 ②
【오답풀이】 ①은 즐음증과 근육의 긴장 풀림으로 설명할 수 있고, ③은 뇌 속의 각성물질인 하이포크레틴 부족이 원인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④는 계으른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음으로 설명할 수 있고, ⑤는 넘어져 다칠 수도 있고 학습 장애를 초래하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계획에 따른 토론 진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회자는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하는가’라는 논제를 제시하여 개정된 케이블카 설치 법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고 있다. 또한 이 과장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김 대표에게 반론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논제와 관련한 최근의 사회 상황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생각을 묻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논제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음을 이야기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하고 있다. ③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은 ③

5. [출제의도] 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국립공원과 연계한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근거는 김 대표가 저자체의 생각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은 ④

[6~12] 쓰기

6. [출제의도] 연상 및 발상을 통해 글의 내용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사과에서 비롯된 다양한 의미를 바람직한 삶

의 자세와 연관해 연상할 때, ‘백설공주를 유혹하는 사과’와 ①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함을 안다.’를 연결하여 연상하는 것은 긴밀성이 떨어진다. 정답은 ①

7.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에 ‘오염된 물은 물고기를 병들게 하고, 맑은 물은 물고기를 건강하게 합니다.’는 대조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깨끗한 환경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를 유추하고 있다. 또한 ‘남긴 음식물로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라는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다. 정답은 ⑤

[오답풀이] ①은 유추와 완곡한 표현이, ②는 대조의 표현이, ③은 대구와 완곡한 표현이, ④는 유추와 완곡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8.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I-(가)는 ‘예술 교육을 받기 힘든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한 자료이며, II는 다양한 문화 체험이 힘든 이유를 제시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③의 ‘문화 예술 단체를 육성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안은 연관성이 부족하다. 정답은 ③

[오답풀이] ⑤ 자료 II에서 기회가 있어도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인터뷰 내용과 자료 III에서 앞으로의 교육에 예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에 관한 관련 지식과 예술적인 감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II-2’의 ‘원인’으로부터 ‘II-3’의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 ⑩은 ‘II-2-다’에서 제시된 ‘청소년 고용 업주의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고용 업주의 노동법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정도로 고치는 것이 옳다. 정답은 ④

10. [출제의도] 글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⑮의 ‘끼우다’는 ‘좁은 사이에 빠지지 않게 밀어 넣다.’는 의미이고, ‘연결하다’는 ‘잇다, 붙이다’는 의미이므로, 같은 의미의 말이 아니다. 따라서 중복되었다는 말은 잘못되었고, 삭제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③

[오답풀이] ② ⑯의 앞문장이 나발의 길이와 관련된 내용이고 뒷문장의 첫 부분이 ‘이처럼 긴 관은 ~이므로, ①을 앞으로 옮겨 두 문장을 이어지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⑮의 앞에서 나발이 손가락으로 연주할 수 없다 했고 뒷문장에서 앞으로만 연주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앞문장이 뒷문장의 원인으로 ‘그래서’로 바꿔야 한다. ⑤ ‘향상’은 ‘수준이나 실력, 기술 따위가 나아짐’의 의미이고, ‘고취’는 ‘용기와 기운을 북돋워 일으킬’의 의미이다. 정답은 ③

11.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단어의 적절한 쓰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행여나’는 궁정적인 결과를 바랄 때 쓰며, ‘혹시나’는 부정적인 상황이 우려될 때 사용한다. 따라서 ①번처럼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은 ①

12. [출제의도] 파생 접미사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우리말의 접미사는 스스로 독립된 단어로 사용되지 못하고, 어간 뒤에 붙어서 어간의 뜻을 세한하거나 문법적 성질을 다르게 바꾼다. <보기>의 용례는 특히 사람의 벗통·성격·모양·직업인을 뜻하는 접미사들인데, 이 외에도 ‘-보’, ‘-꾸리기’ 등이 있다. ③ ‘빛쟁이’의 ‘-쟁이’는 ‘성격이 지나치다’의 의미가 아니라 ‘빛을 준 사람’, 즉 ‘제원자’를 뜻한다. 정답은 ③

[13~18] 시가 복합

(가) 출전 : 김수영, ‘폭포’

개관 : ‘폭포’는 김수영의 대표작으로, 당대 사회와 시대의 부조리한 면을 폭포를 통해서 절타하고 비판

하려는 의도를 담은 작품이다.

(나) 출전 : 이수익, ‘승천’

개관 : ‘승천’은 명왕이 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개인의 치열한 수행을 통해 진정한 소리꾼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다) 출전 : 정약용, ‘고의’

개관 : ‘고의’는 정약용의 5언 고시로 정직한 신하보다 간사한 신하가 드세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시이다.

13. [출제의도] 세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현실의 암담한 ‘밤’과 ‘안정과 나티’를 ‘고매한 정신’으로 비판한다는 점, (나)는 진정한 장인이 되기 위한 노력과 수행 과정을 읊조린다는 점, (다)는 당대의 정직한 모략과 모순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가)와 (나)는 비판 정신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답은 ②

14. [출제의도] 작품을 바르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6연은 ‘가인’이 소리꾼이 되지 못해 망황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부분이므로, 고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은 ④

[오답풀이] ② ‘가인’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모습(목청에 팻물 어리도록 발성을 연습하지만)이 2연에 나타나고, 3연에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결과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5. [출제의도] 두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햇빛 소리’는 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표현이니, 여기에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느끼기는 힘들다. 오히려 한을 토해내는 ‘햇빛 소리’는 소리꾼이 되기 위한 시적 대상의 치열한 모습을 환기하고 있다. 정답은 ⑤

16. [출제의도] 중심소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폭포’는 암담한 현실에서 ‘곧은 소리’를 내며 화자의 의식을 일깨우는 대상이고, (나)의 ‘폭포’는 진정한 소리꾼이 되기 위해 ‘가인’이 넘어야 하는 대상이다. 정답은 ④

[오답풀이] ⑤ ⑯은 실제하면서 동시에 관념의 폭포인 데 비해, ⑯은 현실에 실제하는 대상이다.

17.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A]의 ‘소리’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울바른 소리, [B]의 ‘말’은 치우친 소리로 간신비의 중상보략을 뜻하므로 대조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답은 ②

[오답풀이] ① [A]는 ‘곧은 소리’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담고 있는 단호한 어조를 보이나, [B]는 ‘중상보략’으로 인해 간신들이 들판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지만 단호한 어조를 보이지는 않는다. ⑤ [A]에는 바람직한 세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나 [B]에는 간신배들의 이의 추구에 대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간사한 무리’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시로, ⑮의 ‘이름다운’ 것을 이름답다고 하자는 ‘미덕’에 대한 예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정답은 ③

[오답풀이] ①은 ‘봉황’, ‘나의 충정’과 관련된 시구에서, ②는 ‘장산이’ 변해도 간사한 무리는 없어지지 않네.’에서, ④는 ‘포악한 자’, ‘간신’, ‘항원’에 대한 비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⑥는 ‘간신’을 가리키는 ‘포악한 자’, ‘항원’ 등이 해당된다.

[19~22] 과학

<출전> 조지 윌리엄스, ‘진화의 미스터리’

개관 : 이 글은 안정화 선택 혹은 최적화 이론을 설명한 글이다. 안정화 선택은 날개 길이, 피부색 등의 형질은 중간 정도의 발달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 현재 최적화되어 있는 형질을 계속 유지하게 되므로, 역설적으로 진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한 글이다.

19. [출제의도]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연 선택이 현재 최적의 상태로 발달되어 있는 형질들에서 이탈하는 것을 추리내라고 하였으므로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압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은 ⑤

20.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구체적 사물과 연관 시킬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실러캔스가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것은 진화 잠재력이 발현되지 않아 형질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안정화 선택을 지속하여 삼세 환경에 최적화된 형질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서류로 진화한 다른 물고기와는 진화의 방향이 달랐으나 형질의 우열은 판단할 수 없다. 각 종의 형질은 각각의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지 우열을 판단할 수 없다. 정답은 ④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최적화’는 중간 정도의 발달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이다. 최적화가 지속된다면 평균값을 뱃어난 개체는 줄어들고 평균값을 가진 개체 빈도가 늘어날 것이다. 즉, 날개 길이가 현저하게 크거나 작은 개체의 수가 줄고, 평균 날개 길이를 가진 개체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래프는 가운데로 몰려야 한다. 정답은 ②

22.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시정된다’는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다’는 뜻이다. 정답은 ④

[23~26] 고전소설

<출전> 조위한, ‘최적전’

개관 : ‘최적전’은 동아시아의 전란으로 인해 당대 민중이 입은 피해를 그린 한문 소설이다. 주인공 최적과 옥영의 만남, 경유재란으로 인한 이별을 통해 가족·공동체의 파괴, 피난민의 양산 등 구체적인 전쟁 체험을 작품 속에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2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마침내 최적을 포함한 명나라 군사는 길을 떠나 요양에 이르렀으며’에서 최적이 요양으로 옮겨간 것은 전란이 일어난 무오년이다. 정답은 ③

[오답풀이] ① ‘갑오년 10월에 아이를 낳았으며’에서 갑오년에 최적, 옥영, 봉석이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정유년 8월에 잃어버렸다네.’라는 최적의 말을 통해 정유년에 최적이 봉석과 헤어졌음을 알 수 있다.

24. [출제의도] 작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옥영이 최적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자신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답은 ①

[오답풀이] ③ “삼가 근심하거나 고민하지 마시오.”라는 말을 통해 옥영을 위로하기 위한 최적의 말임을 알 수 있다. ④ 최적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 신분을 드러내었다기보다 명나라 군사로 출전하였지만 살기 위해 임기응변한 것이다. ⑤ 최적이 봉석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시험하였다기보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행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인물의 상황과 한자성어를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옥영이 ‘하느님의 도움으로 다행히 낭군을 만나’라는 말에서 최적과의 재회를 ‘천우신조(하늘과 신령의 도

'움)'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은 ① [오답풀이] ② 고독지책은 '적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무릅쓰고 꾸미는 계책', ③ 경거망동은 '경솔하고 망령되게 행동함', ④ 구밀복검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체하나 속으로 해칠 생각을 가짐의 비유', ⑤ 노심초사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의 뜻이다.

26. [출제의도] 배경 지식을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최적이 재주 있고 용맹해서 출전한 것은 전란에 참가하게 된 계기일 뿐, 최적의 영웅성을 보여주는 부분은 아니다. <보기>에서도 이 작품은 전란을 배경으로 한 영웅소설과 다르다고 제시하고 있다. 정답은 ④ [오답풀이] ①, ②, ③은 최적과 다시 헤어지게 된 육영이 차질하려고 할 정도로 당대의 전략이 비극적인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민중들이 임정난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최적전'이 기우록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최적과 동석의 우연한 만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29] 기술

<출전> 하나가타 야스마사, '3일 만에 읽는 생활 속 과학'

개관 :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손난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먼저 손난로의 발열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후 손난로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와 그 재료들이 손난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부직포에 뚫린 구멍 수가 많을수록 산소 공급량이 많아져 발열량이 많아진다. 따라서 부직포에 뚫린 구멍 수는 발열량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② [오답풀이] ⑤ 철가루와 철판이 산화되어 열이 발생하는 것은 같지만 미세한 분말 상태의 철가루는 산소와의 반응이 빨라져 열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2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시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손난로 봉지 안의 식염수는 철의 산화 속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④ [오답풀이] ② 부직포 구멍의 크기가 크면 산소 공급량이 많아져 열이 많이 발생한다.

29.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마지막 단락을 보면 텁밥과 베미클라이트에 합유된 식염수는 시간차를 두고 흘러나온다고 했다. 텁밥에 합유된 식염수가 거의 다 흘러나왔을 무렵, 베미클라이트에 합유된 식염수가 점차적으로 흘러나온다. 정답은 ②

[30~33] 인문

<출전> 박홍갑, '역대 왕들은 원년을 어떻게 정하셨나?'

개관 : 역대 왕들의 원년을 기산하는 방법을 분류해서 설명하였다. 칭원법을 즉위청원과 유년청원으로 나누어 왕의 즉위년, 원년, 제위 기간을 시대로 따라라 고찰하고 역사 사료를 통해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30. [출제의도] 글을 읽고 정보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고려사', '동국통감'은 고려시대와 달리 유년청원으로 편찬되었다. 이는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앞세워 전왕의 해로 인정한 것이다. 즉, 유교적 충효사상에 기인한 선왕에 대한 도리와 대의 때문이다. 정답은 ②

31. [출제의도] 지문을 읽고 해당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칭원법(기년법)을 즉위청원과 유년청원으로 나누고 즉위청원(홍년청원)은 홍월 청원과 유월청원으로 나눌 수 있다. 즉위청원은 임금

이 즉위하는 해가 원년이며,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되었다. 유년청원은 임금이 즉위하여 해를 넘겨 원년으로 잡았고, 주로 조선 초기에 사용했음을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월청원과 유월청원의 구분은 왕이 죽은 날이 기준이 되며, 유월청원은 왕이 죽은 다음 달부터 신왕의 원년으로 삼는다. 정답은 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즉위청원은 임금이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하며, 유년청원은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했다. 홍월청원이나 유월청원은 홍년청원법이다. 정답은 ③ [오답풀이] ① 유리왕은 즉위한 해가 원년이므로 기원 전 19년이 즉위 원년이다. ② 온조왕은 태조이므로 칭원법에 상관없이 즉위년이 바로 원년이다. ③ 대무신왕은 즉위한 다음 해가 원년이므로 서기 19년이다. ④ 홍월청원은 크게 보아 즉위청원법의 한 방법이므로 유리이사금은 서기 24년이 즉위 원년이다.

33.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치다'는 '우선 샘을 잡아 놓다. 또는 어떤 양으로 여겨 두다.'의 의미이다. 본문의 '치다'는 '(~라고) 본다. 인정하다.'의 의미이다. 즉, 신왕의 원년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정답은 ①

[오답풀이] ② 날개나 꼬리 따위를 세자게 훈들다. ③ 시험을 보다. ④, ⑤ 손이나 손에 든 물건이 세게 당거나 부딪친다.

[34~36] 국문학

<출전> 류장하, '꽃피는 봄이 오면'

개관 : 일년 내내 여름만 있는 나라에서 산다면 어떤 단어로 희망을 표현할 수 있을까. 늦가을에서 봄을 향해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꽃피는 봄이 오면'은 제목 그대로 '꽃이 피어나는 순간을 기다리는 영화다.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면 겨울이 가고 나면 봄이 오겠지, 이를 악물지 않아도, 시간을 앞당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꽃피는 봄이 오면'은 이처럼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환희로 솟아오르는 기분 없이 현우의 세계를 담담하게 담아낸다.

34. [출제의도] 시나리오를 읽은 독자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꽃피는 봄이 오면'에서 현우는 꿈과 현실의 간격을 두고 아버지와 다른 용석에게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 욕기를 준다. 따라서 현우가 용석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은 ③ [오답풀이] ② 용석 아버지의 대화 부분에서 과거를 회상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35. [출제의도] 제시된 시나리오를 영화화했을 때, 영화 제작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꽃피는 봄이 오면'에서 현우는 철망조차 하지 못하고 멋있하고 조라한 삶을 살아가는 딱답한 인물이다. 하지만 긴 겨울을 견디며 따뜻한 봄을 기다린다. 따라서 이 작품을 영화화 한다면, 어른스럽게 자신을 책임지지 못했던 한 남자가 작은 둔덕을 오르듯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 나이에 현실의 벽에 부딪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나타나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아름다운 영상에 담아 서로가 소통하는 모습을 담아 내야 할 것이다. 정답은 ⑤

36. [출제의도] 시나리오 용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페이드 아웃 기법은 영상이 천천히 어두워져서 암전 상태로 되게 하는 기법으로,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극적 전개의 연속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일정한 시간이나 공간, 주제나 상황 변화를 알리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⑤에서는 대사 처리 장면도 나타나지 않고, S#78과 S#79의 시간이 동일하게 낮아므로 시간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기법으로 보기도 힘들다. 정답은 ② [오답풀이] ④ 인서트 기법은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화면을 말하는 것으로, 연주하는 아이들의 얼굴 클로즈업을 인서트로 삽입하면 전체 장면을 훨씬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인서트 화면으로는 대개 클로즈업을 사용한다.

[37~40] 예술

<출전> 김갈복, '춤과 몸'

개관 : 서양식 극장이 도입되면서 서양 춤의 영향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무용에 관한 글이다. 신무용의 창작 방식과 공연 방식, 춤사위와 의상의 특징을 전통춤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서양식 극장의 도입으로 무대와 객석이 분리됨으로써 공연 공간이 뜰이나 마을 공터에서 무대로 옮겨져 춤의 일상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정답은 ② [오답풀이] ⑤ 글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우리의 전통춤의 의상에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천박하거나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 윤리 의식에 따른 것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자료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전통춤이 옷의 전체적인 형태를 우선시하여 몸과 옷 사이에 어색을 두었다면 신무용은 동작의 분명한 선을 드러내기 위해 실루엣을 강조하여 무용 의상에 변화가 생겼다. 정답은 ③ [오답풀이] ④ 신무용은 서양 춤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전통춤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으며, ⑤ 정교한 움직임을 표현하려고 한 것은 전통춤의 특징이 아니라 신무용의 특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책의 정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서구 예술 춤의 의사소통 구조는 일방향이며 전통 한국 춤은 쌍방향이므로 학교 공개의 날에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를 하는 방식은 ④과 같다. 정답은 ⑤

[오답풀이] ④ 정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막 방송을 실시하는 것이 쌍방향의 의사소통 구조는 아니라 신무용의 특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40.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춤'은 몸을 매개로 형상화하여 완성된 결과물이고, '몸'은 춤을 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또는 매개 물이므로 의미 관계가 가장 유사한 단어는 '문학'과 '언어'이다. 정답은 ②

[41~44] 현대소설

<출전> 전승세, '혜자의 눈꽃'

개관 : '혜자의 눈꽃'은 혜자라는 철모모는 어린아이가 밟아 그린 눈꽃을 통해 생의 비극과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나'는 그저 어린아이가 그린 눈꽃을 아름답게만 바라본다. 그러나 흰 눈 위에서 빛나던 노란색 꽃들은 병든 여인이 걸을 때마다 힘에 부쳐 내지른 오줌이며, 여인의 처절한 혼적이다. 그리고 그 오줌에 그린 혜자의 눈꽃은 여인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할머니가 시켜서 그런 것이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혜자의 눈꽃'은 작품 속의 서술자인 '나'가 관심을 가지고 '혜자'가 그린 눈꽃을 살피는 일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그리고 '눈발' 훌뿌리는 하늘 속이나 아니면 술일 새를 강충내는 잣새들', '깻빛 하늘은 낮게 우중충대며 막바운을 날리우고 ~ 소복이 쌓여 가고 있었다.', '잣새들의 푸득거림에 훌날리는 눈가루' 등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감각적인 표현을 잘 활용하여 작품 속의 상황을 형상화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소설이다. 정답은 ①

42.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 혜자의 행동은 수줍음을 많이 타는 혜자의 순수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내가 눈밭에 소변을 본 행동과 관련이 있다. 혜자는 내가 본 소변에다 눈꽃을 그리기 위해 눈길을 떨군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내용 중에 '나의 오줌발이 뚫어 놓은 노랑색 구멍에서부터 양중맛도록 작고 귀여운 고무신 자국을 내는 거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③

43. [출제의도] 특정한 부분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서술자는 혜자가 그리는 눈꽃의 노란 꽃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려고 이리 저리 생각을 하고 살펴보지만 풀지 못한다. 이 궁금증은 [B]에서 혜자의 말을 통해 의문이 풀린다. 정답은 ④

44.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신질환자인 여인이 죽음을 앞두고 이성에 대한 그 리움을 표출하는 행위에서 삶에 아름다움을 드리낸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여인의 죽음을 통한 비참한 혼란에서도 삶을 긍정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답은 ⑤
[오답풀이] 혜자 엄마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성에 대한 그리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알고 할머니가 머느러인 혜자 엄마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기 위해 청없는 손녀를 시켜서 눈꽃을 그리게 한다. 여기에서 할머니의 배려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혜자가 천진난만하게 행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눈꽃이 혜자 엄마의 고통의 산물이라는 사실에서 아픔을 느낄 수 있다.

[45~47] 언어

<출전> 김호식, '점자의 세계'

개관 : '점자의 세계'는 점자의 정의, 역사, 기록 도구, 한글 점자의 표기법 등을 설명한 글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나, '한글 점자의 표기법'을 통해서 일반 독자들도 실제로 점자를 읽어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 단락에서는 북미점자위원회의 점자 정의를, (나) 단락에서는 '브라우'의 6점식 점자의 발생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다) 단락에서는 점자판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점자판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라) 단락에서는 한국 점자가 점을 이용하는 별도의 체계라는 특징을, (마) 단락에서는 한글 점자의 첫소리를 점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정답은 ③

46. [출제의도] 핵심적인 정보의 특징을 다른 정보와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한글 점자의 표기 특징은 음운 하나하나를 풀어쓰는 것이다. 한글은 음운을 움결 단위로 모아쓰며, 영어는 음운을 나열하는 풀어쓰기를 한다. 즉 한글 점자와 영어는 음운의 표기 방식이 풀어쓰기로 동일하다. 정답은 ②

[오답풀이] ① 한글 점자는 음운 하나하나를 끊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③ 한글 점자는 일반 글자의 모양을 본뜬 것이 아니다. ④ 한글 점자와 영어는 음운을 풀어쓰고 있다.

47.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마) 단락과 <보기>를 바탕으로 '아리랑'의 음운 하나하나를 점자 표기에 대응시켜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한글의 첫소리 자음 'o'은 점자에서는 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답은 ①

[48~50] 사회

<출전> 이준구 외, '경제학원론'

개관 : 영국의 경제학자 기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현상의 제시를 통해 경제 현상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48.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영국의 경제학자 기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③) '기펜의 역설'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②), 아일랜드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⑤). 이를 통해 수요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칙과 어긋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①). 그러나 기펜의 역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각도로 분석한 내용은 없다(④). 정답은 ④

4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기펜의 역설'이라는 경제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용어의 의미를 아일랜드의 경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펜의 역설에 대한 다른 학자의 반응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 문단은 기펜의 역설에 대한 앵겔의 반응이 아니라 글쓴이가 앵겔의 법칙을 끌어와 기펜의 역설이 성립하는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정답은 ①
[오답풀이] ② 기펜의 역설은 제작가 열등체의 성격을 가지면서 소득 효과가 큰 경우에 성립한다.
③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를 좋아해서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없어 감자를 주식으로 삼았다.
④ 감자의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 아일랜드 사람들은 소득이 들어나는 효과를 보았고, 이로 인해 그 동안 먹을 수 없었던 빵을 더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
⑤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들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 패턴(수요 현상)이지만, 아일랜드의 경우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5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보리는 아일랜드의 감자와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일랜드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리 가격이 하락했다면 보리 대신 쌀의 소비가 들어났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답은 ②
[오답풀이] ① 감자와 보리가 같은 성격이라고 했으므로 보리가 열등재에 해당하는 식료품이다. ③ 마찬가지로 감자와 보리가 같은 성격이므로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면 예전의 보리는 소득효과가 커다고 짐작할 수 있다. ④ 예전의 보리는 감자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의 보리가 감자와 같지는 않다. ⑤ 요즘의 보리가 일반적 수요의 법칙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 수리 영역 •

정답

1	⑤	2	①	3	②	4	④	5	④
6	⑤	7	③	8	①	9	④	10	①
11	④	12	⑤	13	⑤	14	③	15	③
16	②	17	②	18	③	19	①	20	⑤
21	②	22	54	23	8	24	12	25	32
26	25	27	45	28	24	29	480	30	160

해설

1. [출제의도] 집합의 포함관계와 연산법칙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 \subset A$ 이므로 $A \cap B = B$ 이다.
 $\therefore A^C \cup B^C = (A \cap B)^C = B^C$

2. [출제의도] 합성함수의 합수값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g \circ f)(1) = g(f(1)) = g(-1) = -2$$

3. [출제의도] 복소수의 연산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z = \frac{1-i}{1+i} = \frac{(1-i)^2}{(1+i)(1-i)} = \frac{-2i}{2} = -i$$
$$\therefore z + \bar{z} = -i + i = 0$$

4. [출제의도] 식의 변형과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유리식의 값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2 + b^2 + c^2 - ab - bc - ca = \frac{1}{2} \{(a-b)^2 + (b-c)^2 + (c-a)^2\} = 0$$
$$a, b, c \text{ 가 실수이므로 } a = b = c$$
$$\therefore \frac{b}{a} + \frac{c}{b} + \frac{a}{c} = 3$$

5. [출제의도]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 \cup B = \{1, 2, 3, 4, 5\}$, $A \cap B = \{1, 2\}$ 이므로
 $n(A-B) = 0$ 일 때, 순서쌍 (A, B) 의 개수는 1
 $n(A-B) = 1$ 일 때, 순서쌍 (A, B) 의 개수는 3
 $n(A-B) = 2$ 일 때, 순서쌍 (A, B) 의 개수는 3
 $n(A-B) = 3$ 일 때, 순서쌍 (A, B) 의 개수는 1
 \therefore 순서쌍 (A, B) 의 개수는 8

[다른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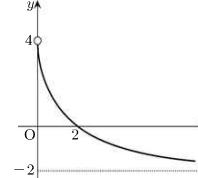
순서쌍 (A, B) 의 개수는 집합 $\{3, 4, 5\}$ 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으므로 2^3 이다.

6. [출제의도]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분 AB 를 $1 : t$ ($t > 0$)로 내분하는 점 P 의 좌표 $f(t)$ 는

$$f(t) = \frac{1+4+t \times (-2)}{1+t} = \frac{4-2t}{1+t} = \frac{6}{t+1} - 2 (t > 0)$$

이므로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7. [출제의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관계를 이용하여 식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